

무주 배경 장편영화 '달이 지는 밤'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김종관 · 장건재 감독
공동연출 · 산골영화제 기획
지역 주민 참여로 작품 완성



▶ 김종관 감독(사진 왼쪽)과 장건재 감독.

전북도와 무주군이 제작·지원한 장편영화 '달이 지는 밤'이 오는 10월 21일부터 개최되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총 192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으로 '달이 지는 밤'은 동시대 한국영화의 역량과 흐름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는 '한국영화의 오늘 - 파노라마' 부문(총 15편)에 이름을 올렸다.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상영)로 상영될 예정인 '달이 지는 밤'은 무주로 돌아온 주인공들이 죽을 너머 삶의 흔적들을 찾는 과정을 그린 2편의 단편영화가 하나로 연결된 특별한 형식의 장편영화로 배우 강진아, 박민규, 김금순, 안소희가 주연을 맡아 열연했다.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조지훈 부집행위원장은 "달이 지는 밤은 무주산골영화제가 재능과 개성이 있는 한국영화 감독들에게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무주

배경 장편영화 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첫 번째 영화라는 점에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며 "전북도와 무주군의 제작 지원이 뒷받침되고 무주군청과 무주읍, 실천면, 무풍면 등 무주 지역이 100% 영화배경이 됐다"는 점, 무주군민이 보조 출연자로 참여를 하면서 영화의 완성도에 기여했다는 점 등도 부산국제영화제 진출만큼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달이 지는 밤'을 연출한 장건재 감독(용인대 영화영상학과 교수)은 아시아티카영화제에서 최우수감독상 등을 수상한 재원으로

진전 '당신의 곁'을 개최했다.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황인홍 위원장(무주군수)은 "메이드 인 무주 영화가 탄생했다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이 돼 너무 자랑스럽다"며 "고생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무주산골영화제를 8회까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며 대한민국 유일무이의 낭만휴양영화제라는 명성을 만들어낸 열정으로 무주산골영화제를 포함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주도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로 '한여름의 판타지'로 제3회 산골영화제에서 뉴비전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종관 감독은 모스크바국제영화제 국제비평가연맹상 등을 수상했으며 산골영화제와는 제3회 개막작 '한여름 밤의 꿈'을 연출하며 인연을 맺었다. '최악의 하루'가 제4회 산골영화제 경쟁부문에 이름을 올렸으며 제6회에서는 사



제9회 젠더문화축제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4일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 1층에서 열린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돌봄 찬 사회' 공감 확산

제9회 젠더문화축제 비대면 진행

청소년 토크 콘서트부터 미디어 내 성평등 현황·문제점 변화를 위한 경험 나눔의 시간 젠더포럼·공감토크 등 열여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운애 센터장)는 제9회 젠더문화축제를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12일~16일까지 4일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젠더문화축제는 젠더문화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부제 아래 여성·대학·종교·기업 등 각 분야 다양한 연령층 1,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 zoom(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축제 첫 날에는 도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1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미디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주제로 청소년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도민을 대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 1층에서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미디어 속 젠더를 말한다)' 주제로 미디어 내 성평등 현황과 문제점과, 변화를 위한 우리들의 경험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20여명으로 제한했다.

셋째 날에는 총 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선 '젠더포럼'에서는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자문위원의 발제로 강연 속 교수(군산대학교), 김익자 회장(전북여성노동자회)의 종합토론회가 이어졌다. 이 포럼에서는 가사와 돌봄을 여성의 일로 생각하는 현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취약한 현실, 경력단절 여성은 비정규직이 되는 현실 등 코로나19 위기가 여성에게 잔인할 수밖에 없음을 비판하며, ▲성별화된 노동 위계 타파 ▲돌봄경제(care economy) 개념화 ▲성인직적 고용대책 등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젠더공감토크'에서는 정상순(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리산 여성회의), 김미숙(해바라기 아동센터 부소장), 권지현(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센터장)의 토크로 우리 동네에서 N번방 대처하는 방법, N번방 피해자 지원 대책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의 특별강연 '떨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조두순, 조주빈 등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징벌적인 입법·정책 뿐 아니라 성착취 문화에 가담하지 않도록 의식을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Talk Talk 한 그녀들' 주제로 젠더리더십 김양희 대표의 강연이 이뤄졌다. 김 대표는 "젠더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그녀의 성장동력(모멘텀, momentum)이 될 것이고, 여성리더십은 젠더관점에서 지역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삶을 지탱하는 생활자인 여성들이 연대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운애 센터장은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다"며 "이번 젠더문화축제 역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감염병과 같은 재난 이후 여성들의 삶을 고향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시대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대안 모색의 지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9회 젠더문화축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육사업팀(063-254-3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추진주매일 창간

www.fplove.or.kr

농지연금 신청하고~ 생활자금 매월 받고~

315 농지연금지급01 1,160,000
415 농지연금지급02 1,160,000
0515 농지연금지급03 1,160,000
0615 농지연금지급04 1,160,000
30715 농지연금지급05 1,160,000
30815 농지연금지급06 1,160,000
30915 농지연금지급07 1,160,000
130915 농지연금지급08 1,160,000
130915 농지연금지급09 1,160,000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농지연금이란? fb 농지은행 kf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작이나 임대로 인한 추가수익도 가능하고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경력단절 극복 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내달 30일까지 참여자 모집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운애 센터장)는 도내 경력단절 극복 취업성공여성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센터는 10월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력단절 극복 취업성공수기 공모전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경력단절예방사업 중 하나로 도내 경력단절 극복 취업성공 여성을 비롯해 출산육아 휴직 후 직장복귀 여성, 재직여성, 기업대표, 인사담당자까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응모 주제는 ▲경력단절예방 및 극복사례, 나만의 경력관리 비법, ▲육아, 가사 등 일·가정 양립 노하우 비법, ▲육아휴직, 시간선택근로 등 경력단절예방 복지제도 우수사례, ▲여성친화지원제도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경력단절예방 및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사례,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을 활용한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 사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위기 속에서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여성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별 참신한 아이디어에 주목하고 있다.

성공수기 접수기간 및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www.jwve.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cherryrb@harmail.net)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음모한 작품은 심사를 거쳐 11월 6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할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최우수상 1점(상금 50만원), 우수상 2점(각 상금 30만원), 장려상 4점(각 상금 15만원) 등 총 7점을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은 올해 11월 중 사례집으로 제작, 전국 새일센터에 배포 할 예정이며, 구직 희망 여성들에게 취업성공 우수사례 전파·보급을 통한 꿈과 희망의 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에게 받는 스트레스 상황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재취업을 하는 마음가짐, 의사소통, 직장 적응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운애 센터장은 "이번 취업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은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 재인식은 물론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의 계기로 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구직여성들에게 자신감과 도전, 용기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재직여성을 비롯한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통한 새로운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경력단절극복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공모전 시상식인 11월 24일에 맞춰 수상자들과 함께 하는 '경력단절 극복 토크 콘서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